

2012학년도 모의 시험 (인문)

가 술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답안에 문항 번호를 쓰고, 한 칸을 띄우고 시작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흑색 펜만을 사용할 것.

출신고교 _____

수험번호 _____

성명 _____

□ 다음 <제시문>과 (자료)를 읽고, [문제 1]~[문제 3]에 답하시오.

<제시문 A>

Toleration is to deliberately allow something which differs from one's own beliefs and standards and of which one disapproves. One can meaningfully speak of tolerating only if one is in a position to disallow¹. You must have the power to forbid² or prevent if you are to be in a position to permit. Furthermore, you must think that you have a right to exercise your power if your toleration is to count as a virtue. This means that your inclination³ to disallow must not be the result of mere whim⁴ or arbitrary⁵ dislike; it has to be reasonably grounded⁶ disapproval which you can expect to be shared by others.

¹허가하지 않다. ²금지하다. ³경향, 성향 ⁴변덕 ⁵자의적인 ⁶근거 있는

<제시문 B>

Discrimination is to put individuals, who are considered to be different from others at a disadvantage. Discrimination typically refers to "negative discrimination" and has an ethical, normative¹ dimension. When we deem an action or a practice discriminatory, we are making a political as well as legal evaluation and are judging against the background of democratic principles of justice and the conviction of the validity² of human rights. In this respect, to discriminate is to treat a specific social group or members of the group, who are set apart from other groups or members of other social groups, unfairly and unjustly. One may discriminate, for example, by repressing³ or suppressing these groups and their members, by excluding them, by segregating⁴ them, or by keeping political rights from them and establishing unjustifiable social, political, economic, educational or other inequalities.⁵

As this makes clear, discrimination occurs within a social context. Discriminators are social actors who commit the social action of discrimination. Discriminators generally have the power to discriminate against others, or empower⁶ themselves (at least temporarily) to discriminate against others, often by the discriminatory action itself.

¹규범적인 ²정당성 ³억누르다. ⁴격리하다. ⁵불평등 ⁶권한을 주다.

(자료 1)

우리가 몸담고 있는 유럽이라는 작은 세계를 벗어나 지구의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오스만 제국의 황제는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20개의 부족을 평화롭게 통치하고 있다. 콘스탄티노플에서는 20만에 달하는 그리스정교도들이 아무런 위협 없이 생활한다. 이슬람 교전(敎典) 해석자 자신이 그리스정교의 총주교를 임명하고 황제에게 데려가 알현케 한다. 이곳에서는 로마 가톨릭이 총대주교를 두는 것 역시 용인되고 있다. 술탄¹은 그리스의 몇 개 섬을 가톨릭 주교들을 임명해 파견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인다.

짐은 이 사람에게 명하노니 키오스 섬에 가서 주교로 재임하면서 그들의 옛 관습과 정해진 의식에 따라 다스리도록 하라.

오스만 황제의 제국에는 야고보파, 네스토리우스파, 그리스도 단의론자(單意論者)들을 비롯하여 콥트 교회 신도, 성 요한 그리스도교도, 유대교도, 조로아스터교도, 바니아(Bania)들도 살고 있다. 오스만 제국의 역사서에는 이들 종교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반란을 일으켰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인도, 페르시아, 타타르에서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평화롭다. 표트르 대제는 자신의 광대한 제국에 온갖 종류의 종파를 허용했다. 그의 제국에는 상업과 농업이 번성했다. 또한 정치 단체가 다양한 종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은 없다.

- 볼테르, '신앙의 자유란 과연 위험한가' -

¹이슬람교국의 군주, 후에 오스만 제국의 황제를 이르기도 함

(자료 2)

동양학을 연구하고 있는 외인 교수. 이왕이면 한국 여성과 결혼했으면 좋겠다던 솔직한 고백에, 자기의 학문을 위한 탁월한 견해라고 무심코 찬의를 표한 것도 자기가 아니던가.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하나의 암시였음이 분명하지 않은가.

이인국 박사는 상아로 된 오존 파이프를 앞니에 힘을 주어 지그시 깨물며 눈을 감았다.

꼭 풀 쭈어 개 좋은 일을 한 것만 같은 분하고도 허황한 심정이었다. '코쟁이 사위' 생각만 해도 전신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몸서리가 느껴졌다.

'더러운 년 같으니, 기어코…….'

그는 큰기침을 내뿜었다.

[중략]

그는 딸의 편지 구절을 곱씹었다.

'애정에 국경이 있어요……?'

이것은 벌써 진부하다. 아버도 학창 시절에 그런 풍조는 다 마스터했다. 건방지게, 이게 새삼스레 아버지께 설교조로……좀 더 솔직하지 못하고…….

그러니 외딸인 제가 그런 국제결혼의 시금석이 되겠다 말인가.

'아무튼 아버지께서 쉬 한번 오신다니 최종 결정은 아버지의 의향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만…….'

그래 아버지가 안 가면 그대로 정하겠단 말인가.

이인국 박사는 일대 잡종(一大雜種)의 유전 법칙이 떠오르자 머리를 내저었다. '흰둥이 외손자.' 생각만 해도 징그럽다.

- 전광용, 「꺼삐딴 리」 -

(자료 3)

시민 사회에서는 각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존중한다. 이러한 개인이 각자의 삶을 영위하면서 창출하는 다양성과 창의성은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각 개인은 신체적·정신적 능력뿐만 아니라, 생각과

정서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가치관도 서로 다르다.

이처럼 시민 사회는 서로 다른 가치와 욕망의 공존을 상호간에 인정하기 때문에 관용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시민 사회에서는 비록 타인의 가치와 욕망이 나의 것과 달라 서로 같을지라도 하더라도 상호간에 존중한다. 나의 가치와 욕망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그것도 동등하게 중요하고 타인의 것을 존중할 때에 나의 것도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민 사회에서는 서로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그러한 차이와 다양성은 사회 전체의 문화나 정신적 풍토를 풍요롭게 하고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사회 발전의 관점에서 타인의 상이한 가치관이나 욕구, 신념 등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시민 사회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개인이나 집단들이 모두 존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익 추구의 권리가 있으므로 관용의 정신으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

- 고등학교 교과서, '시민윤리' -

(자료 4)

정부는 2007년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해 오고 있다. 동 제도는 5급 공채 시험 즉 행정·외무고시에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방 학교 출신의 선발목표비율을 20%로 설정해 놓고, 지방학교 출신의 합격 비율이 20% 미만이면 선발예정인원 외로 추가로 합격 처리하는 제도이다. 국회사무처도 올해부터 입법고시에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가 목표로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비율은 30%로 행정안전부보다 10%나 높다. 행정안전부와 국회사무처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가 비록 지방 출신자만이 대상이기는 하지만 정원 외 추가합격의 개념이기 때문에 서울 학생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러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과 맞물려 이번에는 이러한 공공기관들도 지방대학 출신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제안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방안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 보고 있다. 이렇게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려는 이유는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 1] <제시문 A>와 <제시문 B>가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논제를 찾아 우리말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문제 2] <제시문 A>와 <제시문 B>를 활용하여 (자료 1)과 (자료 2)를 비교 분석하시오. (600자 내외)

[문제 3] (자료 3)의 관점에서 (자료 4)에 나타난 제도의 취지를 옹호하고 이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시오. (800자 내외)

한국외국어대학교 2012학년도 모의 논술고사에서는 ‘관용(toleration)’과 ‘차별(discrimination)’을 핵심 주제로 하여 <제시문>과 (자료)를 구성하고 [문제]를 만들었다. <제시문>과 (자료)는 주제와 관련한 개념적 논의와 다양한 학문 분야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 [문제]는 <제시문>과 (자료)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제시문>과 (자료)의 상관관계를 적절하게 읽어내는 능력,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분석하는 통합적인 사유 능력을 측정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제시문> 두 개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되었다. 영문 <제시문>을 사용한 이유는 지식과 정보가 유례없이 빠르게 유통되는 지구촌 시대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매체가 되는 외국어 실력, 특히 영어 실력의 선취가 필수적이라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정신 때문이었다. 영문 <제시문>은 어휘, 통사구조, 개념과 관련한 난이도 측면에서 현재 고등학교 교과과정 영어 교과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이고, 분량도 200단어 내외여서 의미 파악에 큰 어려움이 없는 글이다.

논술고사에 활용된 영문 <제시문>과 국문 (자료)는 다음과 같다. 영문 <제시문>은 D. D. Raphael의 ‘The Intolerable’과 Martin Reising의 ‘Discrimination in Discourses’이다. 국문 (자료)는 볼테르의 ‘신앙의 자유란 과연 위험한가’, 전광용의 『꺼삐딴 리』,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의 ‘시민윤리’, 그리고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관련 기사 내용이다. 인용한 <제시문>과 (자료)는 원문 그대로 인용한 경우도 있고, 원문의 내용과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경우도 있음을 밝혀둔다.

-인문계-

<제시문 A>는 D. D. Raphael의 "The Intolerable."에서 발췌한 것으로 관용(toleration)의 개념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한 영어 지문이다.

<제시문 B>는 Martin Reising의 "Discrimination in Discourses."에서 발췌한 것으로 차별(discrimination)의 개념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한 영어 지문이다.

(자료 1)은 볼테르의 ‘신앙의 자유란 과연 위험한가’에서 발췌한 것으로 종교적 관용을 나타내고 있다.

(자료 2)는 전광용의 『꺼삐딴 리』에서 발췌한 것으로 인종적 차별을 드러내고 있다.

(자료 3)은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의 ‘시민윤리’에 관한 것으로 관용을 강조하고 있다.

(자료 4)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기사 내용으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취지인 관용을 강조하고 있다.

<2012학년도 논술출제 방향>

-내용적 측면:

- ① 한국외대의 키워드인 국제(international studies), 문화(cultural studies), 언어(language studies) 연구를 내용 요소로 그대로 유지한다.
- ② 새로운 출제 지침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언어, 외국어, 사회탐구 지문을 활용한다.
- ③ 문학, 비문학 지문을 고루 활용하되 제시문은 개념과 쟁점을 도출할 수 있는 지문을 활용한다.

-형식적 측면:

- ① 제시문 두 개를 모두 영문 지문으로 구성한다.
- ② 첫 번째 문항을 핵심어(key word)가 아닌 핵심 논제(agenda)를 찾아내는 것으로 구성한다.
- ③ 세 번째 문항을 수험생의 창의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한다.